

국방의무 마치고 내년 시즌 기다리는 타이거즈맨들

# “호랑이 발톱 다시 세우는 중이지 말입니다”



‘전역’ 투수 이준영

상무서 커브·체인지업 연마  
“지난해 팀 우승보며 활약 다짐”

KIA 함평 챌린저스필드에 식구가 늘었다. 익숙한 곳이지만 아직은 어색한 표정으로 훈련을 하는 짧은 머리의 세 사람. 이제 막 전역증을 받은 투수 이준영, 내야수 황대인, 포수 박정우다. 세 사람은 지난 11일 나란히 ‘예비역’이 됐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자마자 챌린저스필드로 내려와 KIA 선수로 변신했다. 이준영과 황대인은 상무에서 함께 운동한 동이다. 역시 상무 동기인 ‘2018 퓨처스리그 다승왕’ 전상현은 지난 12일 1군에 등록됐다. 좌완 이준영은 9일 퓨처스리그 LG전에서 상무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7이닝 6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황대인도 8일 경기까지 소화한 뒤 자유의 몸이 됐다. 이준영은 “아직 적응이 다 안 됐다(웃음). 신인 때 마음이다”며 “상무에서 많이 배우고 왔다. 멘탈적인 부분이 좋아졌다. 경기하는 데 여유가



‘전역’ 내야수 황대인

상무서 장타·송구 능력 좋아져  
“경쟁할 생각에 기대·우려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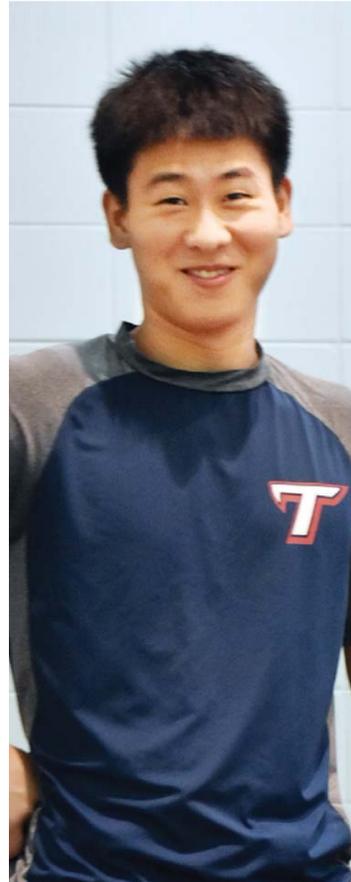
생겼다”고 돌아봤다. 커브와 체인지업이라는 구종도 잘 가다듬었다. 이준영은 “예전에는 슬라이더만 주로 던졌는데 커브와 체인지업을 많이 배웠다. 1년 차 때는 초조하고 그랬는데, 2년 차가 되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시도도 하고 재미있었다. 2년 잘하고 있다는 마음이다”며 “지난해 팀이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빨리 가서 나도 하고 그런 순간에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은 기간 몸잘 만들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타격 기대주 황대인도 “아직도 군인 같다”면서도 “내 것이 생겼다”고 밝은 표정이다. 그는 “예전에는 공을 못 띄웠다. 지금은 공을 띄우면서 치게 되니까 홈런도 많이 나온다. 송구도 좋아졌다”며 “다른 팀에서 모인 동료들 통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다. 이야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각자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었다”고 2년의 시간을 평가했다.



‘전역’ 포수 박정우

해병대 훈련하며 튼튼이 복귀 준비  
“다시 만나는 야구, 반갑고 행복”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벗어 던졌지만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황대인 앞에는 경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황대인은 “홀가분한데 걱정도 된다.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보니까 유승현도 잘치고, 최원준도 원래 잘 쳤고 긴장도 되는데 잘된 것도 같다. 경쟁 준비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정우는 다시 만난 야구가 반갑다. 그는 해병대 소속으로 나라를 지켰다. 처음에 해병대에 자원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박정우는 “후회는 없다”고 웃었다. 박정우는 “처음 훈련소에서 음식도 많이 못 먹고 훈련도 힘들어서 잠깐 후회를 하긴 했다(웃음). 처음에 몸무게가 23kg이나 빠졌다”며 “그래도 이왕하는 것 확실하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야구를 했던 친구가 있어서 캐치볼도 하고 준비를 했다. 야구를 다시 하게 됐다는 게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장’ 박찬호

내달 전역 앞두고 필드로 휴가  
“몸 만들기 최선...복귀 준비 끝”

세 사람 외에 국방부 시계를 열심히 돌리는 ‘예비 예비역’도 있다. 수방사 1경비단에서 군 생활을 하는 병장 박찬호가 챌린저스필드로 ‘특별 휴가’를 왔다. 지난 10일 휴가를 받아 친정으로 내려온 박찬호는 아예 챌린저스필드로 입소해 훈련으로 휴가를 보내고 있다. 19일까지 훈련을 할 예정인 박찬호는 추석과 복귀, 챌린저스필드 휴가 일정으로 10월 27일 전역날을 맞게 된다. 얼굴이 썩 들어간 박정우와 달리 박찬호는 살을 찌우는 데 공을 들었다. 박찬호는 “한창 시즌을 보낼 때 63kg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77kg이다. 몸을 더 불릴 생각이”며 “빨리 야구를 하고 싶다. 지난해 팀이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에 없다는 게 아쉽고 후회도 됐는데 군 생활 잘한 것 같다. 몸잘만 들었고, 다른 고민 없이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또 터졌다

최지만 클리블랜드전 결승 투런포

최지만(27·탬파베이 레이스)이 시즌 9호 홈런을 결승 투런포로 장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지만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8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최지만의 타율은 0.274에서 0.280(161타수 45안타)으로 올랐다. 11일 클리블랜드전에서 9회말 2아웃에 역전 끝내기 2점 홈런을 터뜨렸던 최지만은 다시 한 번 클리블랜드를 울렸다. 0-0으로 맞선 1회말 2사 1루에서 타석에 등장한 최지만은 클리블랜드 선발 카를로스 카라스코의 초구를 공략, 가운데 담을 넘어가는 결승 홈런을 터뜨렸다. 최근 5경기에 홈런 3개를 몰아친 최지만이다. 3회와 6회에는 삼진아웃으로 몰려나 최지만은 3-1로 앞선 8회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추가했다.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타석에 선 그는 바뀐 투수 앤드루 밀러의 2구를 때려 우익수 쪽 안타로 출루했다. 5경기 연속 안타와 11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간 최지만의 활약에 힘입어 탬파베이는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다시 핀다

강정호, 교육리그 실전경기 출전  
피츠버그, 재계약 의사 우회 표현

손목 수술 이후 재활에 힘을 쏟아왔던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조만간 실전 경기에 출전할 전망이다. MLB닷컴은 13일(한국시간) “강정호가 타격 훈련을 시작했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2016년 말 한국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2017년을 통째로 날렸던 강정호는 올해 비자를 받아 극적으로 다시 미국 땅을 밟았다. 마이너리그에서 차근차근 복귀를 위한 절차를 밟아갔던 강정호는 왼쪽 손목을 다쳤고, 지난달 4일 수술까지 받았다. 토드 톰치 피츠버그 스포츠 의학 팀장은 강정호가 최근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의 구단 훈련시설에서 가벼운 스윙과 땅볼 처리, 송구 등을 통증 없이 소화했다고 전했다. 이 단계를 무사히 넘어가면, 실제 타석에서 투구를 지켜보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를 마이너리그 경기가 아닌 교육리그에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강정호의 올 시즌 빅리그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음 달 2일이면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일정이 모두 끝나기 때문이다. 피츠버그가 강정호를 교육리그로 편성한다는 건 내년 시즌 재계약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 시즌 활용할 수 없는 강정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는 건 피츠버그의 선수단 운영 계획에 그가 여전히 포함됐다는 것을 뜻한다. /연합뉴스

## 테니스 스타들 서울로~

WTA 투어 코피아오펜 내일 개막... 오스타펜코 등 역대 챔피언 4명 출전

국내 유일의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KEB 하나은행 코리아오펜(총상금 25만 달러)이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개막한다. 올해 대회도 ‘한가위 클래식’이라는 대회 별칭에 걸맞게 준결승과 결승이 추석 연휴 기간인 22일과 23일 ‘명절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다. 2004년 창설돼 15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 엘레나 오스타펜코(10위·라트비아)를 비롯해 역대 챔피언 4명이 출전해 뜨거운 우승 경쟁이 기대된다. 2013년 아그니에슈카 라드반스카(59위·폴란드), 2015년 이리나 카멜리아 베큐(53위·루마니아), 2016년 라라 아루아바레나(72위·스페인) 등이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특히 이 대회 최초로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오스타펜코는 대회 주최 측이 확실히 믿는 ‘행복 보증

수표’다. 지난해 5월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펜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고 9월 한국을 찾은 그를 보기 위해 단식 결승전에는 약 9000명의 관중이 가득 들어찼다.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돋보이는 21세 신예 오스타펜코는 올해도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프랑스오펜에서 우승할 때는 남자 톱 랭커인 앤디 머리(영국)보다 빠른 포핸드 샷 스피드를 기록해 화제가 됐을 정도로 일단 때려 부수고 보는 스타일이다. 오스타펜코의 우승 도전에 강력한 대항마로 지목되는 라드반스카는 오스타펜코와 정반대되는 수비형 테니스를 구사한다. 2012년 월드컵 준우승에 개인 최고 세계 랭킹 2위까지 찍었던 라드반스카는 키 173cm의 호리호리

한 체구의 소유자로 파워보다는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코트 커브 능력과 절묘한 코스 공략 등으로 상대 범심을 유도해낸다. 또 올해 월드컵 8강까지 오른 키키 베르텐스(12위·네덜란드)와 복식 세계 랭킹 1위 출신 세수 웨이(40위·대만) 등도 주목할 선수들이다. 이 대회는 첫해였던 2004년 챔피언 마리아 사라포바(러시아)를 비롯해 비너스 윌리엄스(미국), 마르티나 힝기스(스위스), 마리아 키릴렌코(러시아), 아나 이바노비치(세르비아), 다테 기미코(일본), 캐럴라인 보즈니아키(덴마크), 카롤리나 플리스크바(체코)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쳐 갔다. 한국 선수로는 2013년 8강까지 올랐던 장수정(205위·사랑모아병원)과 한나래(245위·인천시청) 등이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본선에 출전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제주서 열리는 PGA

## CJ컵에 토마스 출전

198~21일 클럽 나인 브릿지

남자골프 세계랭킹 4위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한국 최초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 CJ컵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대회를 개최하는 CJ그룹은 13일 “토머스가 해외 선수 중 가장 먼저 올해 대회 출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올해 CJ컵은 다음 달 18~21일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린다. 토머스는 지난해 같은 곳에서 열린 첫 번째 CJ컵에서 마크 리슈먼(호주)과 연장전을 벌인 끝에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그는 이번 시즌 3승을 거뒀다. 토머스는 “다들 챔피언으로서 CJ컵에 나서게 돼 기쁘다. 제주도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